

## 조선혁명과 동북혁명의 주체성을 강화하는데서 큰 몫을 담당한 력사적인 회의

전영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력사학자들이 남파자회의의 정치군사적의의를 잘 서술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파자회의는 남호두회의와 함께 조선혁명과 동북혁명의 주체성을 강화하는데서 큰 몫을 담당했다고 말할수 있습니다.》(김일성동지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계승본 제7권 100페이지)

주체27(1938)년 11월 25일부터 12월 6일까지 진행된 남파자회의는 조선혁명과 동북혁명의 주체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로선문제를 채택함으로써 일제의 반동공세와 좌경모험주의의 해독적후파로 말미암아 조성된 난국을 주동적으로 타개하고 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한 전반적인 혁명운동을 계속 양양으로 이끌어올리는데서 새로운 리정표를 마련한 력사적인 회의였다.

남파자회의는 무엇보다도 독자적인 판단과 결심을 가지고 자기 나라의 특성과 실정에 맞게 혁명을 자주적으로 해나가야 한다는것을 사무치게 새겨줌으로써 조선혁명의 주체성을 강화하는데 크게 이바지한 회의였다.

남파자회의를 전후한 시기 우리 혁명앞에는 매우 어렵고 복잡한 난국이 조성되어있었다. 하나의 난국은 우리 혁명을 압살해버리기 위한 적의 공세로부터 오는것이였고 다른 하나의 난국은 국제당에 있던 일부 사람들의 좌경모험주의적행동으로부터 오는것이였다.

일제는 그 당시 중국 남방으로 공격의 예봉을 돌리는 한편 후방의 안전을 도모한다는 미명하에 동북항일련군 부대들에 대한 《토벌》에 열을 올리고있었다.

좌경모험주의가 빚어낸 열하원정이 끼친 주관주의와 맹목성의 후파도 심각하였다. 국제당의 지령이 실정에 맞지 않는 무모한것이고 열하원정으로 하여 항일혁명이 엄중한 손실을 당했다는것이 명백해진 이상 흑백을 가르고 그 후파를 청산해야 한다는것은 누구나 다 공인하는 절박한 문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앞에 가로놓인 난국을 타개하기 위하여 조선인민혁명군과 항일련군 1군의 부대들이 남파자에 모여 혁명을 계속 전진시키기 위한 주동적인 대책을 세우도록 하시였다.

남파자회의에서는 우선 국제당의 《열하원정로선》의 좌경모험주의적인 본질과 그 엄중한 후파가 신랄하게 분석비판되고 그에 대처한 자주로선의 정당성을 확증하였다.

《열하원정로선》은 이미 1936년부터 제기된 문제였다.

《열하원정로선》이란 국제당에 있는 일부 사람들이 실정을 고려함이 없이 만주에서 활동하는 항일무장부대들이 《만주국》의 수도 장춘을 반달형으로 포위공격하고 열하방면으로 원정하여 북상항일하는 로동홍군과 협동작전을 벌릴것을 요구하며 내린 무모한 지시를 말하는것이였다.

국제당은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도 자기의 활동지역인 백두산의 산악지대를 떠나 해룡, 길해선쪽으로 나가 장춘을 반달형으로 포위하는 작전에 참가할것을 요구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국제당의 좌경모험주의적인 《열하원정로선》이 제기되던 첫 시기에 벌써 그의 비현실성과 무모성을 꿰뚫어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열하원정로선》이 조선혁명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는 주관주의적이며 일면적인것이라고 보시였다.

당시 조선인민혁명군은 백두산을 중심으로 하는 국경일대와 국내에서 우리의 시간표에 따라 당창건준비사업과 통일전선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시키면서 무장투쟁을 국내 깊이에로 확대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밀고나가고있었다.

바로 이러한 시기에 제기된 국제당의 《열하원정로선》은 조선인민혁명군이 자기의 활동지대인 백두산과 서간도일대를 리탈할것을 요구하는것으로서 이 지역의 혁명조직의 보존확대와 국내작전의 적극화에 심한 저해를 주는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로부터 국내에 꾸려진 혁명조직들을 보존확대하며 앞으로 국내진공작전을 더욱 적극화하기 위해서 서간도와 백두산지구를 멀리 리탈하지 않기로 결심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열하원정로선》이 유격전의 원칙에 맞지 않는 승산이 없는것이라고 보시였다.

유격전은 광범한 인민대중의 적극적인 지지밑에 유리한 자연지리적조건을 리용하여 적의 수적기술적우세를 타승할것을 요구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국제당의 원정계획은 유격부대가 자기의 활동지역인 산악을 떠나 적의 대병력이 집중되어있는 평야지대로 진출하라는것인데 이것은 고기가 물에서 나와 물에 오르라는것과 같은 위험천만한 모험이다, 동만과 남만, 북만의 산악지대들은 공산주의자들이 오래전부터 개척해온 고장인것으로 하여 군중적토대가 좋고 지리적과악도 깊은 곳이다, 항일무장부대들이 본래의 활동구역을 떠나 군중적지반이 없는 열하나 료서의 그 넓은 평지에서 대포나 땅크와 같은 중무기를 가지고있는 적의 정규군과 맞다든다면 경무기밖에 없는 유격대의 처지가 어떻게 되겠는가, 그런 싸움의 결과가 어떻게 되리라는것은 불을 보듯 명백한 일이라고 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국제당의 좌경적로선에 대처하여 그 피해상을 막기 위한 신축성있는 투쟁을 벌리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의 한 소부대를 친솔하시고 주체26(1937)년 9월 신흥과 풍산지구에 진출하시였으며 백두산근거지를 멀리 뜨지 않는 원칙에서 립강, 무송, 몽강일대에서 적배후교란작전을 벌리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와 함께 일석이조의 성과를 올리기 위하여 주체26(1937)년 11월말부터 주체27(1938)년 봄까지 몽강현 마당거우밀영에서 군정학습을 진행하시여 조선혁명가들의 임무를 명백히 하시였으며 배심있게 혁명의 자주적립장과 원칙성을 지켜나가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 항일혁명투쟁의 전기간 견지하신 자주적립장과 혁명적원칙성은 이처럼 국제당과의 관계에서도 일관하였다.

근 2년반에 걸치는 《열하원정로선》의 무모성과 부당성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과학

적인 분석과 실천적태도는 남파자회의 참가자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찬동을 받았으며 이것은 조선혁명의 주체적혁명력량을 더욱 강화할수 있게 한 중요한 계기로 되었다.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은 남파자회의에서 《열하원정로선》에 맹목적으로 추종한 부대들의 사태를 직접 보고 회의과정을 청취하면서 조선의 혁명가라는 자각을 더욱 깊이 간직하고 위대한 수령님을 조선혁명의 통일단결의 중심으로 더욱 높이 모셔갈 맹세를 다지였다.

남파자회의에서는 또한 조선혁명의 자주적립장이 다시금 강조되고 대책적문제들을 토의결정하였다.

혁명의 주체성은 자기 나라 혁명을 자신이 책임지고 자기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수행하는데서 집중적으로 표현된다.

남파자회의에서는 조선혁명은 철저히 자기의 시간표에 따라 자신의 힘으로 수행하여야 한다는 혁명적립장이 다시금 강조되고 적들의 대규모적공세에 대처하여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이 백두산을 중심으로 한 국경일대에 진출하여 군사정치활동을 적극적으로 벌릴데 대한 문제와 파괴된 조국광복회조직을 복구정비하고 대중정치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벌릴데 대한 문제, 혁명에서 자주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할데 대한 문제들이 토의결정되었다.

당시 일제는 조선인민혁명군의 국경일대로의 진출을 가로막고 인민들과의 련계를 끊어버리기 위한 악선전을 대대적으로 벌리였다. 적들은 평야지대로 진출하던 항일련군부대들이 많은 손실을 본것을 기회로 하여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도 《전멸》되었다고 거짓 선전을 하면서 인민들의 혁명의식을 마비시키려고 발악적으로 책동하였다.

특히 일제는 헤산사건을 조작하여 국내와 국경일대에 품들여 꾸러놓았던 혁명조직들을 파괴하였으며 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을 수많은 체포구금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적들에게 군사정치적으로 심대한 타격을 주는 동시에 일시 저락된 인민들의 사기를 북돋아주고 지하혁명조직들을 복구정비하며 광범한 인민들에게 승리의 신심을 안겨주자면 시급히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를 백두산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 나라의 북부국경지대와 국내어로 진출시켜 적극적인 활동을 벌려나가야 한다고 밝혀주시였다.

남파자회의에서는 3개 사단으로 구성되어 활동하던 조선인민혁명군의 제6사는 제2방면군으로, 4사와 5사는 제3방면군으로 편성하고 새로운 지휘체계를 확립하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이 2개의 방면군으로 편성됨으로써 인민혁명군부대들은 보다 큰 규모의 대부대로 넓은 지대들을 담당하여 군사정치활동을 한층 더 적극화해나갈수 있게 되었으며 일제의 대규모적인 《토벌》공세를 대부대의 역량으로 맞서 성과적으로 짓부셔버릴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군조직체계가 새롭게 수립되어 비밀을 철저히 보장할수 있게 되었으며 중간단위의 조직기구를 없애고 지휘체계를 간소화함으로써 부대들의 활동에 대한 적시적인 지휘를 보다 확고히 실현할수 있게 되었다.

남파자회의에서 혁명의 앞길에 가로놓인 난국을 성과적으로 타개하고 혁명을 계속 줄기차게 발전시켜나갈수 있는 전략전술적방침들을 제시함으로써 혁명가들로 하여금 정세가 아무리 어렵고 복잡하여도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립장에 확고히 서서 자기 나라 인민의 힘을 굳게 믿고 그에 의거하여 투쟁하여나간다면 불리한 정세를 유리하게 전변시키

고 혁명을 계속 양양시킬수 있다는것을 보여주었다.

남패자회의를 계기로 하여 조선혁명은 질적으로 한걸음 더 비약하였다.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은 고난의 행군과 같은 시련을 의지나 인내성 하나만으로 극복한것이 아니라 남패자회의의 정신에서 큰 힘을 얻었다. 남패자회의를 통하여 강화된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은 고난의 행군에서 수령결사옹위정신을 낳았으며 걸음마다 막아서는 애로와 난관을 뚫고 승리를 이룩할수 있게 하였다.

남패자회의는 다음으로 동북항일련군안의 중국인지휘간부들과 혁명가들에게 주체적립장을 고수하지 못하면 혁명투쟁에서 실패를 면치 못하게 된다는 심각한 교훈을 새겨주고 동북혁명의 강화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한 회의였다.

열하원정계획이 전달되던 초시기 동북항일련군의 많은 사람들이 그에 대하여 긍정적인으로 평가하고있었다.

남만성위 서기였던 위증민은 국제당의 로선이 군사전략상의 일정한 약점을 내포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크게 해보지도 않고 그것을 회피할수야 없지 않는가고 하면서 국제당의 주관주의적이며 좌경적인 로선을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립장을 취하였다.

1군 군장이었던 양정우도 원정계획에 대하여 명백히 지지를 표시하였으며 그 집행에 대하여서도 적극적이였다. 그는 《서정승리가》라는 노래까지 만들어 대원들을 원정으로 고무하였으며 평야지대로 진출하여 기어이 원정계획을 성사시켜보려고 악전고투하였다. 후보중의 5군과 4군도 중일전쟁발발을 서정실현의 좋은 계기로 보고 지령집행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숭고한 국제주의적립장에서 동북항일련군안의 지휘간부들이 국제당의 좌경적이며 주관주의적인 로선에 맹종맹동할것이 아니라 냉철한 사고로 그의 무모성을 리론실천적으로 꿰뚫어볼것을 권고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국제당의 《열하원정로선》이 중국혁명의 견지에서도 별로 의의가 없는 무모한것이라고 보시였다.

국제당의 원정계획은 북상동정하는 로동홍군(후에는 8로군)과 서정하는 항일련군부대들이 열하계선에서 합류함으로써 중국관내와 동북지방에서의 항일투쟁의 일체화를 실현하며 전반적항일운동에서 새로운 고조를 일으켜나간다는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그 의도는 좋으나 중일전쟁발발후 중국본토전체가 싸움터로 된 조건에서 열하라는 한정된 지역에서의 동북의 항일무장부대와 8로군의 열하진격대와의 합류라는 문제는 별로 의의가 없다고 보시였다.

열하땅은 8로군측으로 볼 때에는 만리장성만 넘어서면 지척에 있는 고장이지만 동북에 있는 항일련군측으로 볼 때에는 수천리 떨어진 먼 곳에 있다. 력량이 상대적으로 약한 유격대가 수적으로 수십수백배나 되는 적들이 곳곳에 집결되어있는 평야지대를 지나 것처럼 먼 거리를 행군해간다는것은 초보적인 군사상식에도 어긋나는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동북항일련군안의 중국인지휘간부들에게 국제당이 원정에 대한 계획을 작성할 때 동북의 현실과 중국혁명의 요구를 정확히 반영하였는가 반영하지 않았는가, 그 계획의 군사적가능성여부를 정확히 타산하였는가 타산하지 않았는가, 더우기는 그들이 시도하는 원정이 유격전의 특성에 부합되는가 부합되지 않는가 하는데 대하여 심중하게 생각하여야 한다고 일깨워주시였다. 그러시면서 국제당이 시달한 열하원정계획에

는 중국혁명의 현실태에 대한 정확한 통찰이 부족하다, 중국전체에서 항일고조를 일으키는것도 필요하고 공산당의 진면모를 파시하는것도 필요하며 또 장개석을 적극적인 항일어로 유도하는것도 물론 필요한 일이지만 동북혁명을 희생시키는 대가로 그런 결과를 얻으려 해서는 안된다고 진정을 담아 충고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그후 동북의 항일련군지휘관들이 국제당로선의 무모성을 꿰뚫어보지 못하고 열하원정을 단행하여 정치군사적피해를 입고있을 때에도 그들을 도와주고 구원하기 위한 실천적인 대책을 세우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들이 림강, 무송, 몽강일대에서 총소리를 내도록 하시였으며 일부 부대들이 무기와 군수물자들을 마련한 다음 몽강현을 에돌아 금천, 류하현을 거쳐 통화계선으로 진출하도록 하시였다.

이것은 조선인민혁명군부대가 원정계획을 어떻게 집행하는가 하는 문제에 앞서 1군의 전우들을 구출함으로써 동북항일력량을 보존하고 여러해동안의 공동투쟁을 통하여 맺어진 조중 두 나라 혁명가들과 인민들사이의 전투적우의를 두터이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항일련군 1군을 도와주기 위한 조선인민혁명군부대들의 군사활동은 적들의 력량을 분산시키고 1군이 포위를 돌파할 가능성을 주었으며 그들의 어려운 처지를 개선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다.

항일련군 1군이 포위를 뚫고 남패자로 집결할 당시 력량도 얼마 남지 않았으며 식량은 이미 다 떨어진 상태였고 겨울이 닥쳐왔지만 행군과 전투로 해진 여름군복을 그대로 입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들을 위하여 남패자의 골짜기마다에 1군부대들의 숙영지를 꾸리도록 하시였고 주력부대의 일부 부대들을 멀리까지 내보내어 적들을 견제하고 소멸하는 전투활동을 벌리면서 사령부로 찾아오는 그들을 맞아들이도록 하시였다.

하기에 양정우는 남패자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보내주신 조선동지들의 결사적인 투쟁이 없었더라면 자기도 자기 부대도 살아남지 못했을것이라고 하면서 수령님께 거듭 감사를 드리였던것이다.

남패자회의에 참가한 1군의 지휘간부들은 열하원정계획이 시달되던 초시기 위대한 수령님께서 진심으로 하시던 권고를 되새겼으며 자주로선의 정당성을 뼈에 사무치게 절감하였다.

양정우는 회의에서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연설은 1로군부대의 활동방향과 투쟁원칙을 명시하는 강령적지침으로 되였다고 하면서 동북항일련군 제1로군 장병들의 한결같은 심정을 담아 뜨거운 감사를 드린다고, 남패자회의는 동북혁명의 주체성을 강화하는데서 실로 전환적국면을 마련한 력사적인 회의라고 격정을 토로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원칙적이며 적극적인 노력에 의하여 몇해동안 동북혁명에 혼선을 일으키고 무모한 전투와 희생을 강요하던 열하원정은 남만에서는 1938년말에 그리고 북만에서는 1939년 봄에 막을 내리였다.

참으로 남패자회의는 조선인민혁명군의 립점부대인 항일련군 1군만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동북혁명전체를 구원하기 위한 실천적인 대책을 토의결정함으로써 중국인지휘간부들과 혁명가들이 동북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동북혁명의 실정에 맞게 로선과 전략전술을 세우고 그에 따라 혁명투쟁을 벌려나가도록 크게 고무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남파자회의이후 동북의 항일련군지휘간부들이 동북혁명의 주체성을 강화하는데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그들의 생활상의 문제와 신변안전문제에도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그들이 활동지역으로 떠나갈 때 주력부대가 가지고있던 식량을 전부 넘겨주도록 하시였으며 양정우, 위증민에게 우수한 지휘관과 병사들로 경위련대를 보강개편해주시였다.

양정우는 동북혁명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진정어린 도움을 두고두고 이야기하였으며 1로군 지휘부 경위련대의 조선인지휘관들과 병사들은 양정우와 위증민이 숨이 지는 순간까지 운명을 같이하였다.

이처럼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직지도하신 남파자회의는 조선혁명과 동북혁명의 주체성을 강화하는데서 큰 몫을 담당한 회의인것으로 하여 조중 두 나라 혁명투쟁사의 갈피에 뚜렷이 아로새겨져있다.

조선혁명의 자주로선을 견지하시며 항일무장투쟁을 곧바른 승리에로 이끄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업적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빛나게 계승되였으며 오늘 위대한 김정은시대에 우리 인민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하고있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 청년학생들은 항일의 혁명전통을 대를 이어 건결히 옹호고수하며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가야 할것이다.

실마리어 열하원정, 자주로선